

구 분		
열람·서명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 원 장	000
확 인 자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장	000
작 성 자	현장대응단 보상담당	000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제2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2023. 12. 5. (화)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제2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23. 12. 5.(화) 15:00 ~ 17:00
- ◆ 심의장소 : 서울소방재난 본부 5층 접견실
- ◆ 참석위원 : 5명 *간사 000(119광역수사대장), 손실보상담당관 000(보상담당)
 - 000 교 수 * 위 원 장
 - 000 변호사 * 부위원장
 - 000 변호사
 - 000 과 장
 - 000 단 장
- ◆ 심의안건: 9건 / 청구금액: 금 000,000,000원
- ◆ 심의결과: 인용 5건, 기각 4건 / 금 000,000,000원

연번	발생일	관할	유형	내용	결과
1	2023-01-18	OO	구조	내부 신원 확인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	기각
				심의결과 : 기각 결정 (위원 5명)	
2	2023-07-08	OO	구조	생활안전출동 중 물적손실 발생	인용
				심의결과 : 인용 결정 (위원 5명) 금 00,000,000원	
3	2023-10-26	OO	화재	내부 신원 확인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이웃)	인용
				심의결과 : 인용 결정 (위원 5명) 금 00,000,000원	
4	2023-10-26	OO	화재	내부 신원 확인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이웃)	인용
				심의결과 : 인용 결정 (위원 5명) 금 00,000,000원	
5	2023-10-26	OO	화재	내부 신원 확인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이웃)	인용
				심의결과 : 인용 결정 (위원 5명) 금 00,000,000원	
6	2023-10-26	OO	화재	내부 신원 확인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원인자)	기각
				심의결과 : 기각 결정 (위원 5명)	
7	2023-11-11	OO	구조	인명구조 활동 중 물적손실 발생	기각
				심의결과 : 기각 결정 (위원 5명)	
8	2023-11-16	OO	구조	내부 신원 확인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	기각
				심의결과 : 기각 결정 (위원 5명)	
9	2023-10-24	OO	구급	구급활동 종사 중 인적피해 발생	인용
				심의결과 : 인용 결정 (위원 5명) 금 00,000,000원	

진행사항 설명

[OOO 간사] 제2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석자 확인 및 위원 소개

- 심의위원 총 7명 중 5명 참석
- 간사 1명 및 손실보상담당관 1명 참석

성원 보고

[OOO 간사] 재적위원 7명 중 5명 참석으로 성원 됨을 위원장님께 보고함

개회 선언

[OOO 위원장] 제2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제1호 안건 심의

[OOO 손실보상담당관] 제1호 안건 설명함(PPT 자료 활용)

2023년 1월 18일 OO소방서 구조 출동 중 내부 신원 확인으로 방화문 등 강제개방 건입니다. 발생 경위는 청구인의 남편은 아이의 아버지로 아이가 집 안에 혼자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집안 내부에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 소방대에게 문개방을 요청했습니다. 소방대는 경찰이 요청했기 때문에 도어락을 파손해서 문개방을 하고 집 안에 있던 아이를 남편에게 인계했고 청구인인 아이의 어머니는 파괴된 도어락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금 00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관련된 사진입니다. 파손된 사진과 수리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청구인의 청구서 내용과 당시 출동 지령서 내용이 상반됩니다. 청구서 내용에는 청구인은 편의점에 잠시 다녀왔었다고 했지만 출동 지령서는 청구인은 밤 열한 시부터 집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000 손실보상담당관] 사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손된 도어락 및 방화문 사진입니다.

[000 위원장] 1호 본건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 요청드립니다.

[000 위원]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구자인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기각의견입니다.

[000 위원장] 000 위원님은 이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000 위원] 청구서 내용과 지령서 내용도 다른 면도 있고 과연 이것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해도 되는건인지 약간 의문스럽네요.

[000 위원] 1월 18일 건인데 지금 신청한 이유는 뭐죠?

[000 손실보상담당관] 처음에는 청구인께서 응답소로 손실보상절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방법을 알려주었으나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이 바쁘다 보니 신청을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청구서 내용과 지령서 내용이 다른 점을 확인해보려고 3일가량 연락을 더 해보았지만 부재 중이었습니다.

[000 위원] 저도 부부간의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각입니다.

[000 위원] 저도 기각의견입니다.

[000 위원장] 결국은 저도 000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좀 더 명확하게 되려면 이 집이 누구의 소유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의 소유가 누구의 소유이든 상관없이 결국은 부부 중 일방이 책임이 있다면 타방이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산 관계가 명확히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기각의견이시네요. 저도 기각입니다.

[000 위원장] 이번 안건의 최종 결론은 기각 5건으로 기각입니다.

제2호 안건 심의

[000 손실보상담당관] 2호 안건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7월 8일 날 00 소방서에서 구조출동 중에 벌집 제거 생활안전출동으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건입니다. 발생 경위는 1층 거주자가 벌집 제거를 위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소방대는 현장에 도착해서 1층 상부에 있는 벌집 제거를 하려고 했으나, 캐노피에 가려져 있어서 벌집을 제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층 거주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2층을 통해서 벌집을 제거했습니다. 제거 작업 도중 로프의 파종이 걸린 난간이 파손되어 파손된 금액 금 00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000 위원장] 의견이 주시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조사 결과에 파손된 난간은 구조물 확인 시 무게를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되어있네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000 손실보상담당관] 처음에는 난간에 로프를 달고 할려고 했는데, 이 난간 자체가 너무 약해 보여서 사진상 뒤에 있는 부분에 계단참에 묶고 로프가 난간에 하중에 걸린겁니다.

[000 위원장] 사진만 봐서는 꼭 난간에 묶어놓은 것처럼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지급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인용입니다.

[000 위원장] 네 000 위원님은 인용 의견이시고요. 다른 위원님

[000 위원] 저도 전형적인 인용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요.

[000 위원장] 두 분 다 인용 의견이시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000 위원] 저도 인용입니다.

[000 위원] 저도 인용입니다.

[000 위원장] 손해 보상 금액에는 문제없겠습니까?

[000 위원] 000,000,000원이면은 인부들 한 번 부르면은 정도 하루 치를 지급을 해야 되니까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장] 2호 안건은 모두 인용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3,4,5,6호 안건 심의

[000 담당관] 제3호 안건 설명함(PPT 자료 활용)

3,4,5,6호 안건은 동일한 화재로 인해 생긴 손실보상 청구 건입니다.. 2023년 10월 26일에 OO소방서에서 화재 출동 중에 내부 신원 확인을 위해 방화문 등을 강제 개방한 안건입니다. 발생 경위는 화재 발생 장소인 000호에서 화재로 인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고 인명 검색을 위하여 상층부인 000호,000호,000호의 방화문을 개방하였고 환기를 위해 공용부 복도 창문을 파손하였습니다. 파손된 각 호의 손실보상청구와 공용 복도 창문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관련된 사진으로는 000호가 당시 화재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000호가 화재발생의 원인이자 있는데 각 호의 손실보상이 가능한지와 공용부 복도 창문의 경우 청구인이 화재 장소인 000호의 소유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가능한지입니다.

[000 위원장] 안건 6호가 세대주 000호 소유자로 화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가요?

[000 손실보상담당관] 네 맞습니다.

[000 위원] 6호 안건의 000호는 화재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보상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원인자가 있긴 하지만 한 단계 뒤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구조활동이라든가 활동을 우리 공공영역에서 했기 때문에 3,4,5호 안건은 인용해줘도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000호의 소유인한테 구상권 청구라든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같긴 하네요.

[000 손실보상담당관] 손실에 대한 구상권은 아직 시도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24년도에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000 위원] 제 의견은 3호 안건부터 6호 안건까지는 전부 인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6호는 기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000호 소유인데 아무래도 여기까지 공용부 창문에 대한 손실을 지급하는 건 좀 어렵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000호의 화재보험은 없었나요?

[000 손실보상담당관] 000호 청구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화재보험은 없었고 000,000,000원의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공용부 복도 창문에 대한 수리도 사실 입주민끼리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000 위원] 그렇다면 3,4,5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6호 청구인인 000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000 위원장] 모두 3,4,5호 안건까지는 인용을 하는 의견이네요. 6호 안건은 모두 기각이구요. 저도 이 사건이 제 고민이 되더라구요. 구상

관계를 좀 명확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끌고 가야 되는 문제인 거 같긴 합니다.

제7호 안건 심의

[000 손실보상담당관] 제4호 안건 설명함(PPT 자료 활용)

2023년 11월 11일 00소방서에서 출동한 구조 출동입니다. 인명 구조 활동 중에 물적 손실이 발생한 건입니다. 발생 경위는 정차된 구급차량을 청구인 차량이 후방 추돌하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사고 확인 중에 청구인이 차량 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차량 앞 유리를 파괴하여 청구인을 구조하였습니다. 관련된 사진을 보면은 구급차 후방 CCTV를 통해 추돌하는 상대방 차량을 볼 수 있고 정차된 상태에서 가속으로 인해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이것을 보고 구급장비인 휴대용 산소통으로 보조석 쪽 앞유리를 파괴했고 차량에 진입하여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손실보상금 중 보험으로 처리한 비용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을 보상할 수 있는지와 손실된 앞유리창과 보닛이 다 보상이 가능한지입니다.

[000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청구인이 사고를 유발한 측면이 있구요.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 구조대원들을 만난 게 행운인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차량이었으면 살았을지, 죽었을지 몰랐을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뒤에서 받았는데 연기가 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생명을 구할 전문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 생명을 구해 줬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하더라도 청구인한테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구급대원분들이 좋은 일 하셨습니다.

[000 위원] 구급대원분들이 생명을 구호한 걸 차치하더라도 청구인의 고

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구요.

[000 위원] 구급 차량에 대한 보험처리도 받은건가요?

[000 손실보상담당관] 네 맞습니다. 청구인의 보험으로 받았습니다.

[000 위원장]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해봤나요?

[000 손실보상담당관] 청구인 분이 원래 지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안건은 이 청구인이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00 위원] 이 부분은 정신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 요청이 있었냐 없었냐는 큰 관건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구요. 만약 이런 경우에 손실을 보상하게 되면 향후에 구급대원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도와주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기각의견입니다.

[000 위원] 저도 기각입니다.

[000 위원] 저도 기각입니다.

[000 위원] 저도 기각입니다.

[000 위원장] 저도 기각이므로 전부 기각결정입니다.

제8호 안건 심의

[000 담당관] 제5호 안건 설명함(PPT 자료 활용)

5호 안건은 23년 11월 16일 날 00소방서에서 구조 출동 중 내부 신원 확인 중에 방화문을 강제 개방한 건입니다. 발생 경위는 청구인의 아버지는 임차인 000호의 부재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자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 신고하도록 말했다고 합니다. 000호 앞 복도에 도착한 경찰은 위치 추적

조회하고 출입국사무소기록을 조회하였다며 자살 의심으로 판단된다고 소방대원에게 문개방을 요청하였습니다. 소방대원은 문개방을 하여 000호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했고 청구인은 파손된 도어락에 대해 손실보상금 00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현장에서 소방대원에게 베란다를 통해 구조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방대는 안전상의 이유로 거절을 하여 문개방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경찰의 자살 의심 판단으로 개방을 허락한 것이지.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000 위원] 이 건은 현장에 있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아까 뭐 청구인의 아버지께서 베란다를 통해서 구조를 개청을 했었다고 하는데 긴급하지 않는 경우는 대원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으나, 현관문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000 위원] 여기가 몇 층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6층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겠죠.

[000 위원] 소방대가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서 열어준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책임 부담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각의견입니다.

[000 위원] 소유자 본인이 이제 경찰이 자살 의심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겠다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동의한 사안이잖아요. 기각의견입니다.

[000 위원] 저도 기각의견입니다.

[000 위원] 저도 기각의견입니다.

[000 위원장] 정리하자면 5명 위원 모두 기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9호 안건 심의

[000 담당관] 제9호 안건 설명함(PPT 자료 활용)

9호 안건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OO소방서에서 구급출동 중에 인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000 손실보상담당관] 발생 경위로는 환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남자 한명과 여자 구급대 두 분으로 이루어져있었습니다. 환자를 이동하기위해 가변형 들것이라고 양옆에 두 명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청구인인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동 중에 청구인이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고 치료비 금 00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000 위원] 금액은 본인이 치료비 영수증인가요?

[000 손실보상담당관] 네, 치료비 영수증입니다.

[000 위원] 구급대가 도움 요청을 했는데 청구인이 힘이 부족해서 다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으로 가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용 의견입니다.

[000 위원]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000 위원] 저도 인용 의견입니다.

[000 위원] 저도 인용 의견입니다.

[000 위원장] 저도 인용으로 전부 인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OOO 간사] 제28차 손실보상위원회 총 9건 중 인용 5건, 기각 4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폐회 선언

[OOO 위원장]

회의에 참석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2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참석해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